

웨이브 아카데미<기도학교> 소감문

성명	임해찬	캠퍼스	4캠퍼스
소속 목장	토비목장	담당교역자	권성빈 전도사님

파워 웬즈데이에서 웨이브 아카데미 기도학교를 듣고, 따라하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기도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기도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그래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나름 기도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따라하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제 소원을 말하는 시간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 해주세요, 저것 이루어주세요, 제발 이번만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했던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에게 소원을 비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했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돌아켜보면 저는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구했던 것들도 생각해 보면 대부분 제 성공, 계획, 욕심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저는 신앙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저 자신을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 힘들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나가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듣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다시 교회에 불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났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큼니다.

부끄럽지만 교회에 다시 나오기 전,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왜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려면 왜 나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실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이 질문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시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따라하는 기도를 하고, 겨울 수련회를 다녀오고, 큐티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졌었던 첫 번째 의심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바라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 믿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가졌었던 두 번째 의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과 시련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기를 원하시기에, 고난과 시련을 막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오직 불행할 때, 힘들 때, 절망적일 때, 슬플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간은 절대 편할 때, 배부를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런 고난과 시련이 없고, 오직 행복만 있다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와 부족함이 없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무너질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찾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하는 기도를 통해 제 기도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전히 제 문제를 먼저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방향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 성공, 계획, 욕심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얻기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기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얻고 싶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웨이브 아카데미와 따라하는 기도는 저에게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제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제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따라하는 기도를 통해 저는 기도의 방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기도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